

시끌벅적 e-스타



일본 여행, 이럴 땐 정말 난감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해외여행 흥수 시대에 일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외 여행지 중에 하나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동감을, 아직 일본 열도를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주는 동영상 인기를 끌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일본여행을 다녀온 한 네티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여행, 이럴 땐 정말 난감해'라는 동영상...

던 그들을 직접 보는 것도 충격적이다. 여론 잃어버리는 일은 두 말할 것 없다. 환율 생각안하고 쇼핑했다가는 국제거지 되기 십상이다. 전압이 다르다는 것 모르고 변압기 없이 일본땅을 밟았다면 그것 또한 난감하다.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하는 난감한 질문이 있다. '배웅준 아니? 배웅준 좋아하니?' 은사마의 인기는... 밀반찬 보기 어려운 일본, 밥상 가득 놓인 반찬 이것저것 집어먹던 한국이 그리워진다. 라면도 내가 알던 그 라면이 아니다. 아기가 한 것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 음식에 온갖 장식을 해봐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하게 한다. 결정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 그 사실을 모르는 일본이 가장 난감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유머

▲근사한 광고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다. "새집으로 이사했니?" "아니, 안 했어." "왜? 살던 집을 팔겠다고 광고를 냈잖아." 그러자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지. 그런데 그 광고를 잘 읽어 보았더니 그 집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집이더라구!" ▲말조심 운전기사가 주인집에 들어갔다. 방에는 아무도 없고 욕실에서 목욕하는 듯 물소리만 들렸다. 기사가 욕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이, 오늘 어디 갈 데 있어?" 그러자 욕실 안에서 화가 잔뜩 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자네 미쳤나?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 그러자 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 사모님인 줄 알고..." ▲다투기 싫어서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다. "지구는 어떤 모양이지?" "둥글겁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니?" 그러자 아이가 말했다. "중입니다. 그렇다면 네모라고 해주지요. 전 선생님과 닮고 싶지 않거든요." ▲판사와 변호사의 차이 초보 변호사가 처음으로 큰 사건을 맡게 됐다. 그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지명한 상대 변호사에 맞서 증인 심문을 했다. 초보 변호사는 증인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얻어 내려고 애썼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판사가 그 증인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져 필요한 대답을 얻어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세 차례나 질문을 하고도 필요한 대답을 얻어내지 못했는데 판사님은 단 한 번의 질문으로 그 대답을 얻어내시니 참 신기하군요." 그러자 판사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나는 변호사들과는 달리 시간당 보수를 받지 않거든요." ▲엄마의 팬티 아홉마들이 에어로빅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는데 철수엄마가 남자팬티를 입고 있었다. 그걸 본 아홉마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니, 철수엄마. 언제부터 남자팬티 입었어?" 철수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남편이 내 차에서 남자팬티 발견한 뒤부터..." ▲별난 다이어트 똥똥한 남자가 다이어트 학원을 찾았다. 남자는 20만원과 50만원 코스 중 20만원 코스를 선택해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알몸상태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날 잡으면 당신 꺼." 남자는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20만원 짜리보다 50만원은 훨씬 더 썩시하겠지?'라고 생각하며 50만원 코스에 등록했다. 그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협상국은 남자가 벌거벗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잡으면 내 것." ▲엄마와 아빠 한 남자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6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서 '아빠 아빠'하고 흥얼거리고 있었다. 아내가 아이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남자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몇 주일 후 집을 자던 남자는 딸아이가 '아빠'하고 소리치는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깬다. 몸을 뒤척이던 아내는 돌아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아기가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리빙 센스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팁③ 손과 도구의 청결 유지 손에는 각종 세균이 많아 내용물을 변질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청결해야 한다. 크림이나 아이크림을 덜 때는 손으로 덜지 말고, 스푼이나 면봉을 이용하는 게 좋다. 펌프나 튜브 타입 패키지는 손이 직접 닿지 않아 좋다. 또한 손바닥보다 손등에 덜어내는 것이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 화장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퍼프나 브러시 등에는 각종 화장품 잔여물과 세균 등이 뒤섞여 있다. 자주 세척하지 않고, 지저분한 퍼프나 브러시를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이들 도구로 화장을 덜어내면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주 1회 정도로 세척해서 사용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8일(음 7월 28일 庚子) 36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48년생 수하인과의 동행은 절대 금하다. 60년생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2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검토는 자세하게 해야 하리라. 84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14, 38 37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해 안타까울 것이다. 4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결정 난다. 61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겉과 속이 꼭 찜다. 73년생 파도가 높으니 대고기 예상된다. 85년생 가정의 힘은 식탁에서 나온다. 행운의 숫자: 17, 29 38년생 방풍림은 여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 만큼 여성의 힘은 위대하다. 50년생 집안살림을 잘 살펴보라. 62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간다. 74년생 좋은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08, 37 39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51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까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라. 63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75년생 이상 보다 친구를 만나야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09, 36 40년생 욕심은 화를 부른다 소말대실 하지마라. 52년생 모든 일에 풀림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처신을 잘하라. 64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76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07, 40 41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 53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수는 없다. 65년생 부부사이 이해있는 대화와 사랑스런 자녀를 살펴보라. 77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21, 25 42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54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66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78년생 눈을 조금만 낮춰서 현실을 보라. 행운의 숫자: 04, 45 43년생 신사나 헛된 문서에 속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조심하라. 55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67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 79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消息이 올다. 행운의 숫자: 24, 25 44년생 재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56년생 구사가 괴롭히나 큰 일은 아니다. 68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에까지 소란사로 변할 수다. 80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 권하리라. 행운의 숫자: 03, 45 45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57년생 삼사일언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69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것이 솟아난다. 81년생 말다툼이 송사사로 화 될 수도 있으나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행운의 숫자: 05, 26 46년생 차 조심 사람 조심. 58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70년생 아늑한 보금자리가 불련한 사람이 같이 있다. 82년생 자신과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련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1, 35 47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준다. 59년생 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다. 71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83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18, 3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17회 광일승 박광주 5단, 대망의 결승행 개인전 준결승 1국 총보 (1~178) 白 박광주 5단 黑 이상의 5단 (포스코) (광주시청) 두 대국자는 모두 우승경험이 없었다. 이 판을 이기게 된다면 대망의 결승행인데 꼭 이겨야만 한다는 부담때문인지 내용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으며 결과도 백의 대승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결과와는 달리 이길 기회는 오히려 흑에게 많았던 판이었다. 중앙의 접전에서 흑 73으로 두점으로 키운 수가 절묘한 수로 백이 74로 장문으로 싸우기를 기다려 흑 77로 깨워준 수가 귀수였다. 이 수로 깨우기 전에 흑 86 자리를 선수해 두었더라면 완벽했다. 아무튼 이 수가 성공해서는 흑의

바둑소식 제4회 도요타텐소배 중국 바둑 거세 제4회 도요타텐소배 세계바둑 왕좌전에서 중국이 선전하고 있다. 중국은 27일 일본기원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 260만에 2집 반승을 거뒀고, 씨에허 7단도 이세돌 9단을 292수만에 2집반으로 꺾었다. 이세돌은 초반 우상귀, 우하귀에서 실리를 챙기면서 다소 앞서 나가는 듯했으나 씨에허의 중반 반격을 맞아내지 못했다. 대회 제한시간은 3시간에 10분전부터 초읽기를 시작한다. 초읽기는 60초 10회, 우승승금은 3천만원(한화 약 2억5천만원), 준우승 1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둑소식 제4회 도요타텐소배 중국 바둑 거세 제4회 도요타텐소배 세계바둑 왕좌전에서 중국이 선전하고 있다. 중국은 27일 일본기원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 260만에 2집 반승을 거뒀고, 씨에허 7단도 이세돌 9단을 292수만에 2집반으로 꺾었다. 이세돌은 초반 우상귀, 우하귀에서 실리를 챙기면서 다소 앞서 나가는 듯했으나 씨에허의 중반 반격을 맞아내지 못했다. 대회 제한시간은 3시간에 10분전부터 초읽기를 시작한다. 초읽기는 60초 10회, 우승승금은 3천만원(한화 약 2억5천만원), 준우승 1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34> Where should we go?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A: Where should we go to get Tom's present? B: Is there a gift shop in the mall. A: No, the one that was there closed down. B: Hmm, I guess we could go to the Art street. A: Tom에게 줄 선물을 사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B: 그 쇼핑 물에 선물용품점이 있었잖아? A: 아니야, 그곳에 있던 가게는 문을 닫았어. B: 음, 그러면 예술의 거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 자네가 그렇게 늦은 이유라도 있는 거야? = Is there a reason that you are so late?

오하오우 니혼고 <1134> 週末に新車(しんしゃ)が届くんですよ. 주말에 새 차가 도착해요. A: 高見(たかみ)さん,車買(か)ったんだって. B: ええ,免許取ったんで,車がないと寂しいでしょう.週末に新車(しんしゃ)が届くんですよ. A: そう,じゃ土日(どにち)に早速(さっそく), 馴(なら)し運転をしながらね. B: 今からワクワクしてますよ. 楽(たの)しみだな. A: 타카미 씨, 차 샀다면? B: 네, 면허를 따서요, 차가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주말에 새 차가 도착해요. A: 그래? 그럼 토, 일요일에 바로 운전연습 해야겠네. B: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려요. 기다가 되네요. 買(か)ったんだって: 샀다고 新車(しんしゃ): 새차 しんしゃ: 하지 않으면

니하오 쑹구위 <211> 你爸爸做什么工作?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A: 你爸爸做什么工作? Ni baba zuo shenme gongzuo? 너 아빠 무슨 일 하세요? B: 我爸爸是警察。 Wo baba shi jingcha. 어 아빠는 경찰. A: 你妈妈做什么工作? Ni mama zuo shenme gongzuo? 너 엄마 무슨 일 하세요? B: 我妈妈是老师。 Wo mama shi laoshī. 어 엄마는 선생. A: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B: 제 아버지는 경찰입니다. A: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B: 제 어머니는 선생입니다. 樂 {zuó} 하다 工作 {gōng zuò} 일 警察 {jǐngchá} 경찰

한자 이야기 <851> 神出鬼沒 (신출귀몰) 귀신 신, 날 출, 귀신 귀, 숨을 몰 신출귀몰(神出鬼沒)은 신(神)처럼 나타났다가 귀신(鬼神)처럼 사라진다는 말로,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출몰하여 소재지를 쉽게 알 수 없음을 비유한다. 전한(前漢)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엮은 '회남자(淮南子)'는 도가사상(道家思想)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중 '병략훈(兵略訓)'은 전략론(戰略論)에 관한 내용이다. 용병술(用兵術)에서 중요한 것은 '고묘한 자의 행동은 신(神)이 나타나고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신출귀몰, 神出鬼行)처럼,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늘과 같이 운행하는 것이다.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굽히고 펴는 것에 아무런 전조(前兆)도 없고, 형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아군의 계략과 진(陣)치는 일, 군대의 세력과 병기 등을 적군이 알아차리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출귀몰(神出鬼沒)'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는 것은 '당희장어(唐?場語)'이다. "두 머리에 세 얼굴이 있는 귀신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兩頭三面 神出鬼沒)"는 구절이다. 이 말은 우리 말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난다'는 표현과 같은 뜻이다. <한예원(韓喜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